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08호

2024년 1월

이별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4:26-51)	전 준 덕	3
요한계시록 듣기(55)	손 현 섭	15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연 창 호	24
창세기 공부 1	최 정 일	31
여로보암 왕	조 규 철	52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8
성탄	최 제 현	60
사진으로 만나는 전국집회	편 집 실	67
이런 일 저런 일	편 집 실	71

성서신애사

이별

지난 11월 30일, 아버지가 94세의 생을 마감하셨다. 많은 분의 위로와 기도 덕분에 장례식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잘 모셨다.

아버님은 고등학교 시절, 이웃 마을 여고생(우리 어머님)에게서 신약성경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여학생의 성의를 생각해서 방바닥에 누워서 ‘한 번 읽어볼까?’ 하고 책을 폈는데, 읽다 보니 누워서 읽을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무릎을 꿇고 읽기를 마쳤다고 한다.

어머님 덕분에 신앙에 들어와 일생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다.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를 보고, 고향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교회로 오게 되었고, 아들 4형제의 가족도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은 소임을 다하고 가시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마지막 3년을 노인홈에서 생활하였다. 8명의 어르신들 돌보는 가정 같은 곳이었지만, 어찌 불편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거나 무엇이 싫다거나 불평을 한 일이 없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셨으리라.

최후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사라져 어떤 말씀을 전해도 무심 그 자체였다. 또 신체의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 고개조차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다른 이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아기가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놓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었다.

나에게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손현섭)

* 이번 일로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기록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한 복된 소식)

마 24:26-51

전 준 덕

26절 : ἐὰν γὰρ εἴπωσιν ὑμῖν, Ἰδοῦ, ἐν τῇ ἐρήμῳ ἐστίν, μὴ ἐξέλθῃτε· Ἰδοῦ, ἐν τοῖς ταμείοις, μὴ πιστεύσητε.

사역 : 자, 저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오. 보시오 “크리스토스가 광야에 있소이다.” 해도 여러분은 나가지 마오. 또 보시오. “크리스토스가 골방에 계시오” 해도 (그 말을) 믿지 마오.

주) 1. ταμείοις : ταμείον(창고, 곳간, 뒷방, 안방, 골방, 숨은 방, 밀실, 은밀한 방)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여격.

27절 : ὥσπερ γὰρ ἡ ἀστραπή ἐξέρχεται ἀπὸ ἀνατολῶν καὶ φαίνεται ἕως δυσμῶν, οὕτως ἔσται καὶ ἡ παρουσία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사역 : 자! 번개가 마치 동편에서 번쩍 나타나면 서쪽까지 빛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임하심도 이와 같소.

주) 1. ἀστραπή : (번개, 빛남, 빛)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2. ἀνατολῶν : ἀνατολή의 복수, 소유격(8:11절 참조).

3. δυσμῶν : δυσμή의 복수, 소유격(8:11절 참조).

4. ἕως δυσμῶν : (서쪽까지)의 속어.

28절 : ὅπου γὰρ ἔάν ᾗ τὸ πῶμα, ἐκεῖ συναχθήσονται οἱ ἄετοί.

사역 : (그러므로) 시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독수리 떼가 모여들 것이오.

주) 1. ὅπου : ὅπου ἔάν+가정법 : (~곳은 언제든지, ~때는 언제든지)의 속어.

2. πῶμα : (떨어진 것, 낙하, 넘어진 것, 패배, 재난, 과오, 시체)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3. συναχθήσονται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4절 참조).

4. ἄετοί : ἀετός(독수리)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주격.

29절 : Εὐθὺς δὲ μετὰ τὴν θλίψιν τῶν ἡμερῶν ἐκείνων ὁ ἥλιος σκοτισθήσεται, καὶ ἡ σελήνη οὐ δώσει τὸ φέγγος αὐτῆς, καὶ οἱ ἄστερες πεσοῦνται ἀπὸ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αἱ δυνάμεις τῶν οὐρανῶν σαλευθήσονται.

사역 : 그러나 그때의 환난 후에는 즉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질 것이며, 달은 자기의 빛을 내지 못할 것이며 별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요동치게 될 것이오.

주) 1. σκοτισθήσεται : σκοτίζω(어두워지다)라는 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σελήνη : (달)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3. φέγγος : (빛, 광채)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4. σαλευθήσονται : σαλεύ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11:7절 참조).

30절 : καὶ τότε φανήσεται τὸ σημεῖον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ν τῷ οὐρανῷ· καὶ τότε κόψονται πᾶσαι αἱ φυλαὶ τῆς γῆς, καὶ ὄψονται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ρχόμενον ἐπὶ τῶν νεφελῶν τοῦ οὐρανοῦ μετὰ δυνάμεως καὶ δόξης πολλῆς.

사역 :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보여질 것이며, 또 그때 지상의 모든 족속이 슬피 울 것이며 저들이 권능과 큰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오.

주) 1. κόψονται : κόπτω(자르다, 끊다, 휘다, 꺾다, (중) 치다, 때리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통곡하다)라는 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φυλαί : φυλή의 복수, 주격(19:28절 참조).

31절 : καὶ ἀποστελεῖ τοὺς ἀγγέλους αὐτοῦ μετὰ σάλπιγγος φωνῆς μεγάλης, καὶ ἐπισυνάξουσι τοὺς ἐκλεκτοὺς αὐτοῦ ἐκ τῶν τεσσάρων ἀνέμων, ἀπ’ ἄκρων οὐρανῶν ἕως(τῶν) ἄκρων αὐτῶν.

사역 :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오. 그러면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의 바람으로 모을 것이오.

주) 1. ἐπισυνάξουσι : ἐπισυνάγω(ἐπί+συνάγω=σύν+ἄγω의 이중 합성동사) (모으다, 함께 모으다. 같이 모으다)라는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ἐκλεκτοῦς : ἐκλεκτός(ἐκ+λέγομαι의 합성어)의 남성, 복수, 대격(20:16절 참조).

3. ἀνέμων : ἄνεμος의 복수, 소유격(7:25절 참조).

4. ἄκρων : ἄκρον(끝, 꼭대기, 종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32절 : Ἀπὸ δὲ τῆς συκῆς μάθετε τὴν παραβολήν· ὅταν ἦδη ὁ κλάδος αὐτῆς γένηται ἀπαλός, καὶ τὰ φύλλα ἐκφύη,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γγὺς τὸ θέρος·

사역 : 자,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시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지금 연하여지고 잎사귀들이 나올 때는 여름이 가까워 짐을 알고 있소.

주) 1. συκῆς : συκῆ의 단수, 소유격(21:19절 참조).

2. κλάδος : (13:32절 참조)

3. ἀπαλός : (연한, 부드러운)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4. θέρος : (여름, 더운 계절)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5. ἐγγύς(부) : (가깝게, 가까이, 근처에)

33절 : οὕτω καὶ ὑμεῖς, ὅταν ἴδητε πάντα ταῦτα,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γγὺς ἐστὶν ἐπὶ θύραις.

사역 : 이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그분께서 문 앞 가까이 계시는 줄로 아시오.

주) 1. θύραις : θύρα의 복수, 여격(6:6절 참조).

2. ἐπὶ θύραις : 문에, 문 앞에)의 속어.

34절 :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αρέλθῃ ἡ γενεὰ αὕτη ἕως ἂν πάντα ταῦτα γένηται.

사역 : 진실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오. 이 시대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오.

35절 : Ὁ οὐρανὸς καὶ ἡ γῆ παρελεύσονται, (παρελεύσεται,) οἱ δὲ λόγοι μου οὐ μὴ παρέλθωσιν.

사역 : 하늘과 땅이 소멸될 것이오. 그러나 내 말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오.

주) 1. παρελεύσονται : παρέρχομαι(παρά+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5:18절 참조).

2. παρέλθωσιν : παρέρχομαι(παρά+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5:18절 참조).

36절 : Περὶ δὲ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καὶ τῆς ὥρας οὐδεὶς οἶδεν, οὐδὲ οἱ ἄγγελοι τῶν οὐρανῶν, (οὐδὲ ὁ υἱός,) εἰ μὴ ὁ πατήρ μου μόνος.

사역 :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오. 오직 내 아버지만이 아실 뿐이오.

37절 : Ὡσπερ δὲ(γὰρ) αἱ ἡμέραι τοῦ Νῶε, οὕτως ἔσται καὶ ἡ παρουσία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사역 : 그래서 노-에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의 강림도 이와 같을 것이오.

38절 : ὡσπερ(ώς) γὰρ ἦσαν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ἐκείναις) ταῖς πρὸ τοῦ κατακλυσμοῦ τρώγοντες καὶ πίνοντες, γαμοῦντες καὶ ἐγκαμίζοντες(γαμίζοντες) ἄχρι ἧς ἡμέρας εἰσῆλθε Νῶε εἰς τὴν κιβωτόν,

사역 : 곧 사람들이 홍수 전날에 노-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과 같이

주) 1. κατακλυσμοῦ : κατακλυσμός(κατά+κλύσων의 합성어) (홍수, 범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소유격.

2. τρώγοντες : τρώγω(먹다,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3. πίνοντες : πίνω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6:25절 참조).

4. γαμοῦντες : γαμ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5:32절 참조)

5. ἐγκαμίζοντες : ἐγκαμίζω(ἐκ+γαμίζω의 합성동사) (결혼하다, 시집 보내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22:30절 참조).

6. ἀχρι(부) : (~까지, ~동안)

7. κιβωτόν : κιβωτός(상자, 궤, 법궤, 방주)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39절 : καὶ οὐκ ἔγνωσαν, ἕως ἧλθεν ὁ κατακλυσμὸς καὶ ἦρεν ἅπαντας, οὕτως ἔσται καὶ ἡ παρουσία τοῦ υἱοῦ τοῦ ἀνθρώπου.

사역 : 홍수가 일어나 저들을 모두 멸망시킬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소.

이같이 사람의 아들 임함도 같을 것이오.

주) 1. ἦρην : ἀίρω(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4:6절 참조).

2. ἅπαντας : ἅπας(모두, 다, 전체의)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복수, 대격.

40절 : Τότε δύο ἔσονται ἐν τῷ ἀγρῷ· ὁ εἷς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καὶ ὁ εἷς ἀφίεται.

사역 : 그때 두 사람이 논밭에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나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오.

주) 1.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 παραλαμβάνω(παρά+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1:24절 참조).

2. ἀφίεται : ἀφίημι(ἀπό+ίημι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3:15절 참조).

41절 : δύο ἀλήθουσαι ἐν τῷ μύλωνι· (μύλω,) μία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καὶ μία ἀφίεται.

사역 : 두 여인이 연자간에서 연자들을 갈고 있을 때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나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오.

주) 1. ἀλήθουσαι : ἀλήθω(갈다, 뺨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

2. μύλωνι : μύλων(방앗간, 연자간)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여격.

42절 : Γρηγορεῖτε οὖν, ὅτι οὐκ οἴδατε ποῖα ὥρα(ἡμέρα) ὁ Κύριος ὑμῶν ἔρχεται·

사역 :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오. 왜냐하면, 어느 때에 여러분의 주님께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오.

주) 1. γρηγορεῖτε : γρηγορέω(단축동사)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눈을 떠 있다, 살아 있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

43절 : ἐκεῖνο δὲ γινώσκετε, ὅτι εἰ ἦδει ὁ οἰκοδεσπότης ποῖα φυλακῆ ὁ κλέπτῃς ἔρχεται, ἐγρηγόρησεν ἂν, καὶ οὐκ ἂν εἶασεν διορυγῆναι(διορυχθῆναι) τὴν οἰκίαν αὐτοῦ.

사역 : 자 여러분은 이 점을 깨달으시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을 미리 알았으면 깨어 있었을 것이오. 그러면 도둑은 자기의 집을 파 구멍을 뚫지 못했을 것이오.

주) 1. ἐκεῖνο : ἐκεῖνος(지시, 대)의 중성,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7:22절 참조).

2. ἦδει : οἶδα의 관거완료,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6:8절 참조).

3. κλέπτῃς : (도둑, 도적)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주격.

4. ἐγρηγόρησεν : γρηγορ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4:42절 참조).

5. εἶασεν : ἐάω(단축동사) (시키다, 하게하다, 허락하다, 맡기다, 놓아 두다, 혼자두다, 포기하다, 버려두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6. διορυγῆναι : διορύσσω(뚫다, 파서 구멍을 내다, 파서 뚫다)라는 동

사의 제2과 수동태, 부정사.

44절 : διὰ τοῦτο καὶ ὑμεῖς γίνεσθε ἕτοιμοι· ὅτι ἢ ὥρα οὐ δοκεῖτε (ὥρα)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ἔρχεται.

사역 : 그러므로 여러분도 미리 예비들 하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오.

주) 1. ἕτοιμοι : ἕτοιμος의 남성, 복수, 주격(22:4절 참조).

2. δοκεῖτε : δοκ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6:7절 참조).

45절 : Τίς ἄρα ἐστὶν ὁ πιστὸς δοῦλος καὶ φρόνιμος, ὃν κατέστησεν ὁ κύριος αὐτοῦ ἐπὶ τῆς θεραπείας(οἰκετείας) αὐτοῦ, τοῦ διδόναι(δοῦναι) αὐτοῖς τὴν τροφήν ἐν καιρῷ;

사역 : 그러므로 자기 주인이 자기의(식구들을) 돌보도록 맡겼는데 저들에게 제 때에 양식을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그 종이 누구이겠소?

주) 1. φρόνιμος : (지각 있는, 생각 있는, 감각 있는, 총명한, 현명한, 생각이 깊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2. κατέστησεν : καθίστημι(κατά+ἵστημι의 합성동사) (데리고 가다, 두다, 놓다, 세우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맡기다, 만들다, 되다, ~하도록 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θεραπείας : θεραπεία(봉사, 섬김, 돌봄, 치유, 신유, 치료, 고침)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소유격과 복수, 대격(본절은 단수, 소유격).

4. τροφήν : τροφή(음식물, 양식, 영양, 자양)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46절 : μακάριος ὁ δοῦλος ἐκεῖνος, ὃν ἐλθὼν ὁ κύριος αὐτοῦ εὐρήσει ποιοῦντα οὕτως.(ποιοῦντα·)

사역 : 자기의 주인이 와서 것처럼 잘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소.

주) 1. ποιοῦντα : ποι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대격(1:24절 참조)

47절 :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ἐπὶ πᾶσιν τοῖς ὑπάρχουσιν αὐτοῦ καταστήσει αὐτόν.

사역 : 진실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오. 그러면 주인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오.

주) 1. ὑπάρχουσιν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여격(19:21절 참조).

2. καταστήσει : καθίστημι(κατά+ἵ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4:45절 참조).

48절 : Ἐὰν δὲ εἴπη ὁ κακὸς δοῦλος ἐκεῖνος ἐν τῇ καρδίᾳ αὐτοῦ, Χρονίζει ὁ κύριος μου ἐλθεῖν,

사역 : 그러나 만일 저 악한 종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더디 오는구나.

주) 1. χρονίζει : χρονίζω(시간이 걸리다, 지체하다, 더디다, 오래 머

물러 있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49절 : καὶ ἄρχηται τύππειν τοὺς συνδούλους, (αὐτοῦ,) ἐσθίειν (ἐσθίη) δὲ καὶ πίνειν (πίνῃ) μετὰ τῶν μεθύνωντων,

사역 : 해서 함께 종이 된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였소. 그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소.

주) 1. ἄρχηται : ἄρχω의 제1과, 중간태, 가정법, 단수, 3인칭(4:17절 참조).

2. τύππειν : τύπτω(치다, 때리다, 두들기다, 상처를 입히다, 벌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3. συνδούλους : συνδούλος(σύν+δούλος의 합성어)의 복수, 대격(18:28절 참조).

4. μεθύνωντων : μεθύω(술 취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

50절 : ἤξει ὁ κύριος τοῦ δούλου ἐκείνου ἐν ἡμέρᾳ ἧ οὐ προσδοκᾷ, καὶ ἐν ᾧ οὐ γινώσκει,

사역 : 그가 생각지도 않은 날에 또 알지 못할 때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오.

주) 1. προσδοκᾷ : προσδοκάω(πρός+δοκ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기다리다, 기대하다, 찾다, 생각하다, 예지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51절 : καὶ διχοτομήσει αὐτόν, καὶ τὸ μέρος αὐτοῦ μετὰ τῶν ὑπο

κριτῶν θήσει· ἐκεῖ ἔσται ὁ κλαυθμὸς καὶ ὁ βρυγμὸς τῶν ὀδόντων.

사역 :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악한 종을 엄벌에 처할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울음(적용하여) 그 위선자들과 함께 버릴 것이요. 그러면 그는 거기서 애통하며 이를 깊이 있을 것이요.

주) 1. διχοτομήσει : διχοτομέω(단축동사) (나누다, 분배하다, 가름하다, 두 부분으로 나누다, 심하게 벌하다)라는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θήσει : τίθημι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5:15절 참조).

3. κλαυθμὸς : (울기, 울음, 통곡, 애통)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 명사의 단수, 주격.

4. βρυγμὸς : (이 갈기, 이를 악물) (8:12절 참조)

5. ὀδόντων : ὀδούς의 복수, 소유격(5:38절 참조).

【12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	마 24:26-46	마 25:26-46
* 마 24:26-51절까지 올려야 하는데 편집자의 실수로 25장26-46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쪽17줄	διεσκορπίζω	διασκορπίζω
6쪽18줄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로부터
9쪽20줄	ἀσθενῆ	ἀσθενοῦντα

요한계시록 듣기 55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손 현 섭

9-10절, 천사의 안내 :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14절, 새 예루살렘의 모습 :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천사가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5-17절, 새 예루살렘의 크기 :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성과 그 문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로 그 성을 재어 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니, 사람의 치수로 백사십사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18-21절, 새 예루살렘의 보석 장식 :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열두 성문은 열두 진주로 되었는데, 그 성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였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27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안의 생활 :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성안으로 들여옵니다.

또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의 영광과 명예를 성안으로 들여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번역)

1. 들어가며

3-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서술을 진행하였다. 지금 읽은 부분은 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정육면체 모양의 큰 성, 새 예루살렘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세상의 모든 보석이 등장한다. 심지어 문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진주라거나, 길거리가 순금과 수정이라고 한다. 이런 묘사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면서 자신의 천국 체험을 책으로 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펄시콜레를 비롯하여 수많은 간증자와 책들이 난무한다. 그래서 천국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환상 속의 장소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고 말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화려함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 영광과 거룩이 형언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보석을 동원하여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면모를 살살이 살펴보기로 한다.

2. 본문 살피기

1) 천사의 안내

최후의 일곱 재앙이 담긴 대접을 들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하였다.

“자, 어린 양의 새로운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을 영적 상태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즉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17장에서 재앙의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중 하나가 이번에는 인류의 복이 되는 새 예루살렘을 안내하는 기쁨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굳이 ‘재앙의 대접을 들었던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데는 다른 뜻이 없다. 그저 일곱 대접 사건이 오늘의 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연결을 짓기 위한 장치로 썼을 뿐이다.¹⁾

1) 사다케 아키라, 요한의 묵시록 하권, 663쪽.

천사가 바빌론(큰 음녀)의 멸망을 보여줄 때도 황야로 요한을 데리고 갔었다(계17:3). 황야는 악마가 지배하는 장소의 상징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산은 당연히 거룩한 장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크고 높은’ 산이라는 꾸밈말을 붙여 신성한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곳에서 천사가 말한다.

“어린 양의 새 신부를 보여 주리라.”

새 신부는 앞서 바빌론, 즉 큰 음녀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새 신부인 교회이다. 신자들이다. 이렇게 하늘의 교회는 지상에서 실현된다. 이 에클레시아, 즉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빛이 났다. 여기서 ‘단장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κεκοσμημενη’(원형 κοσμεω)’는 능동형이다. 그 말은 어린양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능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자신을 삶을 단장하며(준비하며) 산다는 뜻일 것이다.

2)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마다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고, 성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성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다.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의 외양을 하고 있다. 성벽이 있고 드나드는 성문이 있다. 전체적인 외양을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옥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이던 보석이다.²⁾ 따라서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

천사는 금으로 된 자를 들고 성과 성벽의 크기를 측량하였다. 요한에게 그 크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만2천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정방형)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 길이가 약 2천 km이니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정방형은 모양 자체가 균형, 안정, 정의, 완전 등을 나타낸다. 과거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지성소도 정방형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 20규빗(약 8-9m)으로 이루어진 정방형 공간이었다.

천사는 성벽도 역시 측량한다. 성벽은 144규빗이다. 이는 약 65m인데 실제라면 어마어마한 높이이나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2천km라 하니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낮다. 성벽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 영적 도시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성문 위에서 천사가 통제하며,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아래에 있으니 그 성 주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³⁾

4) 새 예루살렘의 보석 장식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푸른 옥이다. 성벽의 열두 기초석, 즉 주춧돌은 모두 다른 보석을 사용하였다. 그 보석의 이름이 벽옥, 남보석, 옥수, 녹

2)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3) 구로사키 고오키지의 신약성서 주해, 요한묵시록 21장.

http://kurosaki-commentary.com/kurosaki_frame.cgi?66+21+6-2-41

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이다. 게다가 성문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안의 길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보석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고대 사회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고가의 보석들이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아는 세상의 보석을 다 동원한 듯하다.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어딘가 낯이 익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의 예복 중 에봇에 장식할 보석을 지시하셨는데, 이곳 보석과 거의 일치한다. 에봇은 예복 위에 걸쳐 입는 앞치마 비슷한 옷으로 흉배(胸背)라고도 한다.

에봇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려라.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에는 감람석, 호마노, 벽옥을 물려라. (출 28:17-21)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빛나고 있는 보석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만 허용하였던 거룩함의 상징이 아닌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바로 그 보석들로 장식하였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고귀한 신부이기 때문이다.

5)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안의 생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할 필요가 없고, 날과 시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 또한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그저 함께 지내면 되는 것이다.

또 해와 달이 없다. 그러나 성안은 항상 밝아서 어둔 밤이 없다. 어린 양 예수가 그 등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실 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 대로이다.

“더 이상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네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사 60:19).”

재미있는 것은 이 밝고 아름다운 성안으로 ‘만국의 백성과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만국 백성이나 땅의 왕들은 멸망에 처하기까지 끝내 적그리스도의 편이었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다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갔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만국 백성과 땅의 왕들’이 처음으로 호의적인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 당연히 앞에서 멸망 당한 그들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즉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국의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의 왕들이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영광과 존귀가 있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그 성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만국 백성과 세상의 왕들을 말한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와 영광을 ‘모든 만국 사람’이 누릴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부정(不淨)한 자, 즉 가증한 일 또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존재를 예언한 이사야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사 52:1).”

부정한 자, 즉 더러운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더러운 자는 누구인가.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이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끈 이들이 바로 부정한 자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

3. 맺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의문이 생긴다.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기쁜 소망이 되기도 하나,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신자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한병덕 선생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명쾌하게 결론지은 글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한다. 나도 이 견해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유형적인 도시라기보다는 무형적인 것 곧,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성이 문자 그대로 종말 후에 실현될 물리적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상의 특정 장소라고 보는 주장도 있으나, 구원받은 참된 교회, 즉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자들의 집단을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 칭하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의 방대한 규모도 ‘구원

받은 자들의 수가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계 7:9)이니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 그 많은 무리를 다 받아들여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친교하며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과 안전과 행복은 아름다운 보석 장식으로 상징하고 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지향하는 삶이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

4) 한병덕,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이사야 64장)

연 창 호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작은 나뭇가지가 불에 타고 물이 불에 끓듯이
산들이 주를 보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사64:1~3).

○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성서에서는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불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할 때에 산들이 진동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 구원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 공의의 심판을 하는 날,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강림할 것을 요청하는 표현이 1절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의 원수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알고 보면 같은 사건입니다. 그때 양인지 염소인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교의 특징은 이같이 늘 주의 심판과 구원을 염두에 두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거룩한 생활 자세입니다. 3절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는 곳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강림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역사관입니다.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속의 역사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할 때는 이 세상이 두려워 떨립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주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이 있었다는 말을
옛날부터 들은 자가 없고
깨달은 자도 없으며
그런 신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는 기쁘게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계속 범죄했을 때
주는 분노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사64:4~5)?

○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누구는 전두환과 그 일당을 찬양하고, 누구는 그 일당들을 비판합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역사의식의 소유자인습니까.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시청 앞의 촛불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왜 묵묵부답입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이 아닙니까. 사람마다 신관(神觀)이 다른 것을 어찌할까요.

4절에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개입입니다. 세상 권세는 불의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있어 그 사건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신 중에서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인격신과 유일신 신앙에 있습니다. 인격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인간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에 이르러서 유일신 신앙이 정립되었습니다. 이사야 이전에는 다른 신들이 있으나 너희는 아훼신만 믿으라는 것이었고, 이사야에 와서 다른 신들조차 아예 없고 오직 아훼만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신관(神觀)도 변화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격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는 인간의 죄악과 범죄를 미워하십니다. 특히 민노라 하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같은 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회개란 그저 마음속의 반성이 아니라 자기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며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를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기(詐欺)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기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어찌 구원입니까. 자기의 죄성과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자 성화(聖化)의 길입니다. 당장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이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애써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사 64:6~7).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고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붙들려고 애쓰지도 않고 계속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부를 축적해 온 교회나 교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헛된 제물로 주님은 이를 역겨워하고, 주를 믿노라 하면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은 그저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사 1:12~13).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건만, 그저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에게 빌듯이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수준의 기도는 미신에게 비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란) 우상 신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신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교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이와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굶어살피소서.
 주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사64:8~10)

○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다 받아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토기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 대해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토기는 약하기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굶어살피사 주의 자비함으로 용서해 달라

고 간구합니다. 이제 광야가 된 시온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폐허이고 황무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출애굽 사건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개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에 있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음을 64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곳이 다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주는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는 침묵만 지키고 계시겠습니까(사64:11~12)?

○ 시온은 황무지가 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패망한 민족신의 신상은 적국의 수장고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이 섬기던 야훼신은 그만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이 섬기던 신들이 승자의 신으로 최고신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신은 열등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노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통곡이자 눈물의 기도입니다. 인간은 살아야 백 년을 못사는데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에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의 고통스런 탄원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통으로 죽고 불의한 자가 권세를 부리는 세상을 어째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지 예언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귀중한 특권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진하면, 하나님이 눈물과 탄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원이 위와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시대의 의인에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픈 역사의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위로와 싸매지는 치유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불의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공의와 정의를 무관심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공부 1

최 정 일

I. 창세기 공부 [6장1-4절]

1. [창 6:1-2]「(1절)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히브리어 원문의 음독과 단어의 순서: 「(1절) 와예히(때에) 키(-) 헤헬(시작할) 하아담(사람이) 라로브(번성하기) 알(위에) 페네이(-) 하아다마(땅) 우바노트(딸들이) 올레두(나니) 라헬(그들에게서) (2절) 와이레우(보고) 베네이(아들들이) 하엘로힘(하나님의) 에트(-) 베노트(딸들의) 하아담(사람의) 키(-) 토보트(아름다움을) 헨나(-) 와이케후(삼는지라) 라헬(자신들을 위하여) 나침(아내를) 미콜(모든 자로) 아셀(-) 바하루(자기들이 좋아하는)」

(1) 루터의 해석

1)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을 가리키고 카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사리분별력이 뛰어나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 또는 약속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고 ‘약속된 씨’[약속된 씨는 하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대를 믿은 사람들이다.

2) 그런데도 그동안 성서 주해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에서 많은 잘못을 범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거기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그러나 주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되어 있다. 성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아들들)은 믿는 사람들 즉 경건한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올바른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

4)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자녀들)’은 육적인 사람들 즉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즉 이 기사[창 6:1-2]에서는 「먼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바르게 살지만 그 뒤에 육적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다.:

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았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이름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빼졌다.

②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고 나자 이름만 사도들일 뿐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른 자들이 나타났다.

③ 여기[창 6:1-2]에서도 그랬다! 아담의 아들인 셋과 그 뒤 에노스 그리고 노아까지 아담 이후 10대까지는 영적이고 거룩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자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 전적으로 육적 인간들이고 세상적인 인간들이었다.

5)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이미 율법도 절제도 명예도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방자하게 제멋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뒤섞여 세상적인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했고 그래서 쾌락을 찾고 타락하고 끝내는 거짓 안전에 빠져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2) 칼빈의 해석

1) 모세는 정결했던 10대의 선조들을 열거한 뒤 그들의 가족들도 또한

타락했음을 말한다. 이 일은 노아의 500세 되던 해보다 더 이전의 시기에 일어났다. 온 세상이 노아 때의 대홍수 전에 모두 타락했다. 세상은 당시에 정결을 보존한 셋의 후손과 그 밖의 자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독하거나 또는 심한 미신에 빠져 있었다.

2) 그러므로 정결한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결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카인의 후손들과 뒤섞인 것은 야비한 배은망덕이었다. 왜냐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축량할 수 없도록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또한 「천사들이 사람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해석은 배척되어야 한다.

4) 정결했던 셋계 후손들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명예는 셋계 후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총과 선택일 뿐이었다. 그러니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일 뿐이다.

5)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욕정에 이끌려 혼인한 타락을 보여준다.

(3) 델리취와 카일의 해석

1) 델리취의 해석

델리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한다.

2) 카일의 해석

① 이 기사창 6:1-2)는 셋 계와 카인계의 사람들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셋 계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카인계는 불신의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② 예수님은 [마 24:38-39눅 17:27]에서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셨다.

③ 이 기사[창 6:1-2]는 특히 혼합된 결혼은 율법하에서 금지됨을 보여 준다.:

[출 34:15-16]에서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 땅의 주민들의 딸들이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들에게 저희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고 있다.

④ 이 기사[창 6:1-2]는 분명히 「천사설(說)」을 배제시킨다. 왜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분명히 [마 22:30; 막 12:25]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에 대하여 세 가지 설이 대립된다.:

(가)제1설: 왕족의 아들(자녀)들이라는 견해

(나)제2설: 천사라는 견해

(다)제3설: 셋 계의 후손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견해

-제1설은 언어의 용법에 비추어 배제된다.

-제2설은 두 가지 논거에서 지지된다.

(a)[욥 1:6; 2:1; 38:7; 단 3:25; 시 29:1; 89:7]에서 분명히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점이다.

(b)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대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맥과 이 기사 취지를 무시하면 이 두 논거는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어휘 자체가 이런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천사’라고 되어있지 않고 ‘엘로힘의 아들들’ 또는 ‘엘림의 아들들’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천사설’을 반드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 73:15)에서

는 경건한 자들이 엘로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고 (신 32:5)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 1:10)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고 (시 80:17)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로힘이 강하게 만드신 그 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에 비추어 ‘천사설’은 반박될 수 있다.

(4)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독일구약성서주해:ATD]의 해석

1)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Engelwesen]을 가리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나타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종종 파견된대창 28:12; 왕상 22:19-22; 욥 1:6].

-[창 28:12]「야곱이 벰엘에서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사자:使者)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왕상 22:19-22]「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의 만군(군대들)이 야훼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욥 1:6]「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왔다」

2) 교회의 초기부터 지금 시대까지 다투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Gottessöhne]이 ①천사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②셋 계의 후손들(사람들)을 가리키는지 하는 것이다. [창 6:1-2]에서 ‘하나님의 자녀들’[하나님의 아들들, 베네이 하엘로힘: Kinder Gottes]은 ‘천상계의 존재들’이다. 이때 천사는 「육체를 가진 계보학적 의미」가 아니고 신화(神話)적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인간인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중죄를 저지르게 유혹받는다. 즉 천사들의 질서에서 떨어져서 무절제하게 인간인 여자들과 뒤섞인다.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시어 말씀으로 심판하신대[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때나 카인 때처럼].

3) 그러나 이 민속적 관념(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 존재)은 믿음의 삶에 비하여 그 의미가 극히 경미하다. 왜냐면 자연과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역사)는 너무나 직접적이시기 때문이다.

2. [창 6:3]「(개역 개정)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의 음독과 단어의 순서: 「와요멜(이르시되) 아도나이(야훼께서는) 로(아니하리니) 아돈(하지) 루히(나의 영이) 바이담(사람과 함께) 레올람(영원히) 베쇄감(이는) 후(그들이 -됨이라) 바사르(육체가) 웨하이우(그러나 -되리라) 아마우(그들의 날은) 메아(일백) 웨에세림(이십) 쇠나(년이)」

* (흠정역 영어성서 및 칼빈의 번역 및 NASB 영어성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왜냐면 사람도 또한 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 (루터번역독일어성서: 나의 영은 항상 사람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육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백이십 년 동안의 기한을 더 주겠다.)

(1) 루터의 해석

1) 이것은 야훼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제 야훼의 심판은 머지 않아 임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혹독하고 사람들을 경악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직책과 관계되며 <신약성서>에서는 더 분명히 나타난다.

[요 16:8]에는 이렇게 있다.「보혜사(보호자, 협조자, 성령)가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2) 그리고 이 기사[창 6:3]에서는 성령이 심판자가 아니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때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본성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성령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에게 오셔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셔야 한다. 성령은 오직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행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과 싸우시는 것은 큰 은혜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저주이고 심판이다.

3)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과 아담과 셋과 에녹에게 선포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의 악을 억제하려고 노력한 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되었다. 그들은 온통 육적인 본성으로 되어 내가 나의 영을 가진 내 자녀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한 말씀을 듣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그래서 나도 또한 심판을 감면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신다. 이것은 끔찍한 재앙이고 그들은 맹인처럼 더듬거리다가 온통 죄와 치욕 속에 빠져서 멸망될 것이다.

4) 이것이 [신 28:28-29]에서 모세가 말한 ‘마음의 무모함, 맹목과 광란’이다.「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험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5) 바울 사도도 [살후 2:9-12]에서 이 재앙을 경고한다: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옳다」라고 말하나 사실은 그것은 악마와 사마이었던 것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악하게 행동하고 조롱하며 아무도 복음에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실 때까지 복음을 우리에게서 도로 가져가 버리심으로써 세상을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맹목으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직 백이십 년의 기한을 주겠다 하셨다」란 노아 때의 대홍수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칠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8) [창 5:32]에는 「노아의 나이 오백 세 되었을 때 노아는 썸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있다. 그리고 [창 7:6]에는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였다」라고 있다. 그러니 이 두 기사를 비교하면「노아 때의 대홍수까지 즉 노아에게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주신 시간」은 백 년뿐이다. 이제 문제는 [창 6:3]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주신 시간이 백이십 년」이라는 것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즉 이십 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9)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사람들의 악이 너무 강력히 압도해서 대홍수의 재앙을 서두르셨기 때문에 이십 년이 더 단축되었을까?」 아니면 미래를 예상하고 미리 말씀하셔서 「이십 년은 노아가 세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지나갔을까?」 아니면 「백이십 년은 모두 노아가 세 아들을 낳기

전에 지나갔을까?」 그 셋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나(루터)는 대답할 수 없다.

10)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노아 때의 대홍수 때까지 잘못을 고칠 기한을 주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주해자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과 생명을 얼마나 오래 허용하실지를 결정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은 백이십 세보다도 훨씬 일찍 죽기 때문이다.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과 생명을 얼마나 오래 살도록 생각하셨다는 구절」은 찾을 수 없다.

11)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할지 여부라는 목적이 세상에 대하여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매일 매일 더 악해졌다. 그래서 이 기사가 주목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시려고 하시는지를 볼 때 그것은 크고 경악할 대(大)변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토록 맹목적이 되고 어리석어져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하는 모든 것을 멸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선례와 경고를 본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심판을 늦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불법과 악을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에서 확실히 믿게 된다.

(2) 칼빈의 해석

1) 「나의 영은 언제나 사람과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① 하나님의 이 심판은 혹독하고도 정의로웠다. 인간들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다시 치유될 희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한 가족을 빼고는 온 세상을 철저히 멸망(노아 때의 대홍수)시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다.

② 이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된다.:

(가)일부 유대교 랍비들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단’(nadan)[칼집]의 어근에서 단어가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칼집에 싸여있는 칼과 같이 인간의 몸 안에 갇혀있는 성령을 더 이상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해석은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므로 마니교의 열광자들의 생각과 유사할 뿐이므로 거부되어야 한다.

(나)또 다른 유대교 랍비들은 「여기서 쓰인 단어는 ‘돈’(doon)에서 파생되었는데 ‘돈’은 (a)심판하다(judge)의 의미와 (b)소송하다(논쟁하다)[litigate]의 의미를 모두 가져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본다.

(다)루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령에 의하여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성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불밝히실 때 우리 안에서 심판재판관의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이 견해는 특히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직책을 통하여 행사하시는 외적 관할권을 가리킨다. 물론 이 해석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나 내(칼빈)는 다음 해석이 더 좋다고 본다.

(라)내(칼빈)는 「사람들의 타락에, 그동안 하나님은 지치셨으나 그에 대한 심판은 일정기간 연기하셔서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싸울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물론 내(칼빈)는 완전히 루터의 해석(하나님께서 사람의 철저한 타락을 보신 후 더 이상 예언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해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칼빈)가 보기에 그런 해석은 일반적 선언을 너무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버리는 해석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는 복수행위로써 인간을 멸망시키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싸움을 끝내시겠다는 것이다. <70인역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서>는 문자가

비슷하다고 하여 ‘싸우다’를 ‘머물러 있다’(카이아메이네:카타메노[카타+메노, 거기 계속 머무르다]에서 파생됨, shall not remain)로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2) 「사람은 육이므로」부분:

① 여기서는 「더 이상 사람과 다투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신 이유가 나온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인간의 육적 본성에 반대하여 두시는 것」으로 본다. 바울 사도는 [고전 2:14]에서 같은 의미로 말한다:

「그러나 육적 인간은 성령에 속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에 속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육적 인간은 성령에 속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②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 육과 싸우는(다투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왜냐면 육은 사려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치욕의 표지로서 육이라는 이름을 주신다.

③ 그런데 이 육이란 호칭을 「인간의 영혼 중 열등한 부분」에 한정해서 붙이려고 해석한다면 크게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면 「인간의 영혼은 모든 면에서 손상되어 있고 인간의 이성(理性)은 인간의 감정이 타락한 것처럼 맹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인간의 영혼 전부가 육이라고 불린다.

④ 정말로 인간마다 각각 인간의 전체가 신생(거듭남)의 은총에 의하여 인간의 전체가 영적으로 되기 시작하기까지는 원죄 이후는 그 본성상 육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로 비난하신다:「너희 인간은 내가 준 영혼(마음:mind)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보라! 올바른 이성(理性)에서 멀어져서 거의 들짐승처럼 되고 말았다!」

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퇴화하고 타락한 본성을 맹렬히 비난하신

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 어리석음으로 떨어져서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야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직 이 땅 위의 것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고 지성(사려분별:intelligence)의 빛은 꺼졌고 자신의 욕심만 따른다.

⑥ 내(칼빈)는 왜 주해자들이 그 중요한 접사인 ‘베좌감’[이는: 전치사+관계사+부사: for that-also]을 못 보고 넘어갔는지 의아해 한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이 때문에, 그도 또한 육이기 때문에: on this account, because he also is flesh」를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질서가 크게 깨뜨려져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육으로 바뀐 것을 한탄하고 계신다.

3) 「그러나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일 것이다」

① 고대의 일부 주해자들[예: 락탄티우스:Lactantius]은 터무니없게도 잘못 해석해서 이 부분을 「인간의 수명의 기한이 이 시간범위 즉 120년 내로 한정되었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은 이 부분은 명백히 어떤 사람이건 한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허용된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② 더우기 여기서도 또한 하나님의 찬양할 만한 자비로우심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즉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지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심판을 백 년 이상 연기하시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명백한 불일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기 때문이다」[창 9:29]. 그러나 「노아는 대홍수가 있는 뒤에 35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다[창 9:28].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에 노아는 600세였다」[창 7:6; 7:11]. 그렇다면 「120년은 어디서 발견될 것인가?」

④ 유대교 랍비들은 대답하기를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증가해지자 하

나눔께서 원래 허용하신 회개의 기한인 120년을 단축하셔서 100년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그러나 <성서>가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육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영이 사람들과 언제까지나 다투고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으니 그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창 5:32; 6:3].

4) 사실은 [창 5:32]에서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의 의미는 「노아가 실제로 500세에 도달했다고 단언하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성서>에는 히브리어의 이런 어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기간의 개시점과 만료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이때 노아의 삶의 5번째 세기[400-499세]의 대부분이 지나갔으므로 「노아가 그때 거의 500세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5) 결국 [창 6:3]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노아는 약 480세였다」라고 해석함이 옳다.

(3) 델리취와 카일의 해석

1)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육일 따름이므로 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부분의 해석:

① ‘둔’[또는 ‘딘’]은 「다스리다」[rule]의 뜻이다. 그리고 ‘다스림’의 결과로서의 ‘심판’의 뜻이다. 그리고 ‘야돈’은 ‘통치자」[ruler]의 뜻이다.

② ‘영」[루아]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물리적 윤리적 자연적 및 영적 삶의 원칙」을 가리킨다.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도로 거두어들이시려고 하시며 이로써 사람의 삶과 행위를 끝내신다.

③ ‘베쇄감’[이는]은 ‘베’와 ‘쇄’를 합친 것이고 ‘아쇄르’[이므로]와 ‘감’[=이는 - 함이라]의 축약이다. 그 뜻은 「왜냐 하면 -이기 때문이다」[because]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해석이 ‘감’이 「왜냐 하면 그도 역시 육이기 때문이다」[because he also is flesh]이라고 되어 절 안에 조화되지 않는 강조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④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해석을 더 선호한다.:

(가) 즉 ‘쇄감’은 ‘쇄각’[샤가그]의 ‘to-부정사’인데 ‘쇄가그’는 ‘샤가’와 같은 뜻으로서 「잘못을 범하다, 방향하다, 정도를 벗어나다」의 뜻이다.

(나) 결국 「그들의 범죄함 안에서 ‘속(屬)’으로서의 사람은 육이다」로 된다 [in their erring(that of men) he (man as a genus) is flesh].

(다) 이 해석의 난점은 「수(數)의 극도로 과격한 변화」[즉 ‘그들’과 ‘그’]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는 많기 때문이다(대시 5:10).

(라) 이 기사는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육으로 빠져들어가므로 그들이 육에 빠져있게 내버려두셨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질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신적 목적[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삶의 목적]에 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⑤ ‘바사르’[육(肉)]은 이미 윤리적 의미를 가지는데[이는 <신약성서>의 ‘사룩스’(육)와 같음] 단지 「사람의 자연적 유형적 성질[육체적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의하여 불신으로 타락한 것」도 또한 나타낸다.

2) 「그러므로 그의 날들은 120년이다」부분의 해석:

① 이 기사의 뜻은 「인간의 수명은 장래에 결코 120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120년의 유예기간(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인류에게 아직 허용된다」는 뜻이다.

② 즉 문맥을 볼 때 이 기사의 말씀이 노아의 480세 때에 알려졌고 그

래서 그는 ‘의의 선포자’[벧후 2:5]로서, 타락한 인류에게 선포했다. [벧후 2:5]에는 이렇게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③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로 거두어들여서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은 여자들을 아내로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창 6:1-2]에는 이렇게 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④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에 대하여는 (㉠)천사들이라는 견해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견해[godly men]와 (㉢)왕족들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카일은 제1설(=사설)을 반대하는데 그 논거로서 유혹자는 천사이고 유혹받는 자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나타나 있고 유혹자인 천사에 대한 심판의 기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든다 [즉 창 3:14-15에서의 유혹자인 뱀에 대한 심판과 다르다]. 이는 무사(無私)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어긋난다.

(4) 게르하르트의 해석

1) [창 6:3]의 첫 부분에서의 ‘야돈’[심판하시다:strafen]은 ‘둔’[강력하다, 통치하다]에서 도출된다.

2) 천상적 존재와 이 땅 위의 여자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원래의 창조질서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력」이 인간 안에 들어왔다. 여기서 ‘영’[숨, 호흡: 루아흐: Geist, Spirit]은 「카리스마, 추가적인 성령의 은

사]가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지속적인 신체적 생명력」을 가리킨다. [시 104: 29]에서는 이렇게 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숨)을’ [=루함]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이 초인적인 생명력이 강력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왜냐 하면 인간은 이 악령적(초자연적) 힘이 인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 즉 「흠으로 만들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력 안에서 그렇게 반신(反神)적인 방법으로 상승된 인간이 그 이상(以上)을 넘어설 수 없는 최고수명의 한계를 확정하신다.

4) 난해한 ‘베쇄감’은 ‘사각」[그들의 타락 안에서:in ihrer Verirrung]에서 도출하기보다는 관계사인 ‘쇄’와 전치사인 ‘베’와 불변화사인 ‘감’의 합성어에서 도출하는 것이 낫고 그 뜻은 ‘- 때문에, weil, because’로 보된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말씀은 앞의 구절[창 6: 1-2]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게 되며 단지 원래의 악행자들(천사들)과 그 튀기들만이 아니고 인간 일반에게 임하게 된다.

3. [창 6:4]부분의 해석: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의 음독과 단어의 순서: 「한네피림(네페림이) 하이우(있었고) 바이레츠(땅에) 바야뎨(시에) 하헤(당) 웨감(도) 아하레(후에) 켄(그) 아셀(-) 야보우(취하여) 베네이(아들들이) 하엘로힘(하나님의) 엘(을) 베노트(딸들) 하아담(사람의) 웨올두(자식을 낳았으니) 라헴(그들에게) 험마(그들이) 하기보림(용사라) 아셀(-) 메올람(고대에) 아네쎬(사람이었더라) 핫쎬(유명한=악명높은)」

(1) 루터의 해석

1) 이 기사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으로 되고 난 뒤 그들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다. 즉 땅에 ‘네페림’[폭군과 같은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권세있고 명망있는 자들이었다. 즉 이 폭군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결합하여 낳은 자식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움을 감추는 핑계로 사용한다. 죄악의 흉측함은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선=겉치레)을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즉 루터 당시까지) 내려 오고 있다(루터 당시의 타락한 가톨릭의 모습).

2)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아들들)이라고 말한다」.

3) ‘폭군같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네페림’이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거인’[gigantes, 기간테스]이라고 부른다. 이 ‘폭군같은 자들’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강요하는 자들이었다.

4) ‘나팔’[Naphal]에서 ‘네페림’이 나왔는데 ‘나팔’은 히브리어로 「위에서 내려누르다:넘어지게 하다, fall」의 뜻이다. [시 10:10]에는 이렇게 있다:「이렇게 가련한 이는 악인에게 두들겨 맞아 쓰러지고 힘없는 이들은 악인의 폭력에 넘어집니다」

5) 이 폭군 같은 자들은 이방인 중 ‘헤라클레스’같이 무적의 폭군과 같다.

(2) 칼빈의 해석

1) 이 네페림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세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불법적으로 끊임없이 으스대는 자들」을 가리킨다. 히브리어 명사인 ‘네페림’의 어원은 동사인 ‘나팔’에서 나왔는데 「넘어지다, fall」의 뜻이다.

2) 내(칼빈)가 보기에는 그 뜻은 ‘급류’[격류:torrent]나 ‘격렬한 폭풍우:

storm'에서 유래하며 이것들이 덮칠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되듯이 「이 폭군 또는 강도와 같은 자들은 온 세상을 멸망과 황폐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이다. 즉 모세는 여기서 특히 이 폭군과 같은 자들의 건장함[robust]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강도질과 소유욕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 문맥에 있어서 '웨감'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70인역 그리스어 번역 구약성서>에서는 「그리고 이 뒤에: and after this」로 번역하고 있고 이는 내칼빈의 해석과 합치되고 <흠정역 영어 번역 성서:KJV>의 번역[그리고 또한 그 뒤에도: and also after that]과 합치된다. 이것은 「카인의 후손들」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 부패」가 분명한데 「셋의 후손」[거룩한 씨들도 타락했고 이것은 결코 악의 경미한 악화 정도가 아니다.

4) 이것은 「거인[네피림]들이 먼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혼합 결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선례를 모방했다」라는 뜻이다.

5)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부분의 뜻:

①이 뜻은 「그들은 흉포한 폭군과 같은 자들인데 무엇보다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다」의 뜻이다.

②「명성이 있었다. 악명높았다」라는 뜻은 「그들은 그들의 악을 자랑했다」라는 뜻이다.

③이렇게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도 멸시하고 다른 사람도 멸시한다. 그들은 악자를 괴롭힌다.

(3) 델리취와 카일의 해석

1) '네피림'은 '나팔'[-위에 떨어지다: fall upon]에서 나왔는데 '침략자'[invaders]를 가리킨다. 그래서 루터는 올바르게도 '폭군과 같은 자: tyrants'로 번역했다. 즉 「그들이 백성 위에 덮쳐서 압제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네피림'을 <70인역 그리스어 성서>가 번역한 '거인'[=기간테스]으로 볼 수는 없다.

2) ‘거인’으로 번역하는 견해는 그 근거를 [민 13: 28,32-33]에서 찾으나 그것은 납득될 수 없다. 왜냐면 <민수기>에서는 「가나안을 정찰하고 온 자들이 우리는 가나안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네피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창 6:4]의 뜻은 「그 당시에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네피림’은 「이 혼인들의 열매들」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3) 「그 당시에」[in those days]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위에 심판을 선고할 때는 물론이고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해석함이 더 좋다.

4) ‘용사’는 ‘네피림’보다는 「혼합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하나님의 아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킨다고 봄이 더 좋다.

(4) 게르하르트의 해석

1) [창 6:4]의 ‘거인 출현’은 [창 6:1-2]과 연결이 더 잘 되고 [창 6:3]의 심판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다.

2) [창 6:4]의 ‘네피림’은 「강력한 자, 용사」인데 <70인역 그리스어 번역 성서>에서 ‘거인들」[기간테스, 영웅, Heroen]이라고 잘 번역했다.

3) [창 6:5-6]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에게 야훼는 전적으로 인격이시고 가장 살아계시고 가장 감동적인[마음을 사로잡는] 의지이시고 기뻐하심, 진노하심, 혐오하심, 질투하심, 사랑하심 등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특히 예언자들에

게 있어서는].

-구약적 생각[관념]으로는 ‘마음’[Herz: heart]는 감정뿐만이 아니고 이
해력과 의지의 장소이기도 하다.

- 하나님은 두려운 대홍수의 심판 전에 이미 한 사람[노아]을 지켜보셨다.
노아에게서 훗날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다.

II. 발표재최 정일이 살피본 총괄

1. [창 6:2]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올바른 의미에 대하여:

루터의 해석, 칼빈의 해석, 카일의 해석을 지지하고[즉 정결을 보존한
셋의 후손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견해] 게르하르트와 델리취
의 「천사설」은 취하지 아니한다.

2. [창 6:3]의 본문 전체의 올바른 번역과 [창 6:3]의 앞부분의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1) 본문 전체의 올바른 번역: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과 흠정역 영어
성서 번역=KJV]과 칼빈의 번역과 NASB영어 번역을 취하여 「야훼께서 말
씀하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육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백이십년 동안의 회개 기한을 더 주겠다」
로 번역하는 것을 취한다.

(2) [창 6:3] 중 앞부분의 기사[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육이기 때문이다]의 올바른
해석: 루터와 칼빈과 델리취·카일의 해석을 취한다.

3. [창 6:3] 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직 백이십
년 동안의 회개 기한을 주겠다」부분에서 ‘백이십 년’의 정확한 계산의 방
법에 대하여:

특히 칼빈과 델리취의 해석을 주된 해석으로 취하고 루터의 해석을 보

완적 해석으로 취한다.

4. [창 6:4]에서의 ‘네피림’의 올바른 의미에 대하여:

루터의 해석과 칼빈의 해석과 델리취·카일의 해석을 취한다.

5. 반박: 게르하르트의 해석은 앞에서 발표재최 정일가 취한 해석과 대부분 대립되는데 게르하르트의 해석은 반박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로보암 왕

조 규 철

성경 (왕상11:37~38)

37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38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왕상14:9~10)

9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지난 세 번의 성경공부(솔로몬왕, 르호보암왕, 거짚 선지자)에 모두 조금씩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의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인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이스라엘)에게는 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두 아들의 후손들, 12지파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사 및 종교교육을 담당한 레위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고 요

셉지파는 두 몫을 할당받아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도 숫자로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족속은 세력이 큰 지파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 지파에 속합니다.

솔로몬왕은 토목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로보암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왕은 여로보암이 힘이 있고 일을 잘 하여서 요셉지파 전체의 부역 감독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왕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은 길을 가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신을 섬기는 등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의 왕국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행실을 보면 솔로몬 당대에라도 왕국을 뺏어 버리고 싶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실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의 아들 대에서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고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나마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유다지파만의 왕이라도 이어가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읽은 성경 본문 첫 번째의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11:37~38)

37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38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일단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는 삼기는 하겠는데, 그 이후에는 조건이 있

고, 약속이 있다.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의 왕조가 견고할 것이다. 왕조란 왕의 아들이 계속하여 이어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잠시 미래를 다녀오겠습니다. 다윗왕조는 22대까지 이어집니다. 참조로 우리나라의 이씨조선 왕조는 27대에 끝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들때, 그러니까 단 2대만에 끝납니다.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살라는 조건을 실천하지 못하여 약속이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당 시대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히야의 대화가 어떻게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시삭이 초대 왕이 되는 새 왕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 왕조의 마지막 왕의 딸을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했었음) 시삭은 여로보암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줍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 즉위식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본거지인 세겜으로 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데리고 르호보암 앞에 와서 솔로몬왕 시절에 과중했던 부역(강제 노동)과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솔로몬왕을 조연했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조연했으나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엘리트들의 조언에 따라 전보다 더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이에 북쪽의 열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같은 해에 각각 남쪽과 북쪽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자기의 백성들이 종교적 의무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결국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습

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1. 열 지파 땅의 최 북쪽에 있는 단과 최 남쪽에 있는 벧엘에 신당을 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각 신당에 하나씩 세운 후에 이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2.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 열 지파 땅 안의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남쪽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구라도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면 제사장으로 시켜 주었습니다.
3. 율법에 정해진 절기를 바꿔서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만들어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로보암은 북쪽의 열 지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신당의 금송아지에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종교는 입으로는 야훼를 믿는 종교이나 실체는 본래의 야훼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야훼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야훼의 형제)에게 아내를 보내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게 하였습니다. 아내는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았고 위 본문 성경의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14:9~10)

9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 아들이 죽을 것인데 그의 죽음이 그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온 백성이 그를 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만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힐 것이다. 아이는 예언대로 죽고 백성들의 애도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재위합니다. 그 때에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17년), 아비아(3년), 아사(41년) 이렇게 3대가 지나갑니다. 여로보암은 아사 통치 초기에 죽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무슨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과 북은 대규모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열 지파에서 80만 명을 모으고, 아비야는 남쪽 두 지파에서 40만 명을 모읍니다. 숫자적으로는 월등히 우세한 여로보암은 매복작전까지 해서 아비야를 앞 뒤 양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50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퇴합니다. 아비야는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북쪽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하여 확보하기까지 합니다. 여로보암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재위하였는데 잇사갈 지파의 바아사가 반역하여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일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 짓게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감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집안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름은 두고두고 후대에 악행의 근원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거둡니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앞을 보고 가기>



성탄(聖誕)

최제헌

When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태어날 때)

Johnny Mathis 노래

A ray of hope flitters in the sky
A shiny star lights up way up high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m.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 silent wish sails the seven seas
The winds have changed whisper in the trees
And the walls of doubt crumble
tossed and t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A rosy hue settles all around
You've got the feel you're on solid
ground
For a spell or two no one seems forlorn
This comes to pass when a child is born

Misery and suffering would be
forgotten forever
And all of this happened because the
world is waiting, waiting for one child

하늘에 희망의 빛이 깜박이고,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이 빛난다.
온 누리에 새 아침이 밝아온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일어납니다.

조용한 꿈이 일곱 바다를 향해하고
변화의 바람이 나무에서 속삭인다.
그리고 의심의 벽은 던져지고
찢어지고 부스러진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이뤄지리라.

장밋빛이 온 세상을 덮고,
당신은 단단한 대지 위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는 누구도 외롭지 않으리.
한 아기가 태어날 때의 일이다.

슬프고 고통스런 세상은
영원히 잊히리라.
이 모든 일은 온 세상이 한
아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p>Black, white, yellow, no one knows But a child that would grow up and turn tears to laughter Hate to love, war to peace And everyone to everyone's neighbour</p> <p>It's all a dream and illusion now It must come true, sometimes soon somehow All across the land dawns a brand new morn</p>	<p>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잘 자라나서 눈물을 웃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전쟁을 평화로 서로를 이웃으로 바꾸어 줄 아이</p> <p>그것이 지금은 꿈이고 환상이나,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온 누리에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p>
<p>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가 1972년에 작곡한 “soleado”의 곡에 Fred Jay가 가사를 붙여 이탈리아 가수 치로 다미코(Ciro Dammicco)가 발표한 곡으로 괴기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 노래가 크리스마스 캐럴로 들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1976년 미국가수 조니 마티스가 영어로 발표하며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으며 Boney M.이 1981년 발매한 이후 크리스마스 캐럴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p> <p>그리고 이 노래는 성탄뿐 아니라,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곡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일년내내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p>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아가 자라나 사랑을 하면 보름달이 뜰 때 늑대로 변한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주인공 나자리노는 이웃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악마가 나자리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면 저주를 풀어주고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만, 나자리노는 거절하고 사랑을 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름달 아래 늑대로 변한 나자리노를 주민들이 총으로 사냥하는데, 그 소녀가 나자리노 대신 총에 맞습니다. 이에 도망하려던 나

자리노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Nazareno Cruz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조금 찜찜하지요. 생명과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스토리는 좋지만, 이 아름다운 음악이 음울한 영화에 사용된 것도, 예수의 사랑을 이성에 대한 사랑(Eros)으로 묘사한 것도 모두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When a child is born의 가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내용이며, 멜로디는 마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간략히 보겠습니다.

1절: 세상에 구원과 희망을 가져 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밤하늘의 별과 아침 해도 설레며 그 조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을 리 없겠지요. 성경에서도 이 경사의 징조를 기록한 부분이 많습니다.

*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장엄하게 알립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2절: 조용한 소망이 일곱 바다를 향해합니다(A silent wish sails the seven seas). 라는 구절에서 “일곱 바다”는 전 세계를 의미하며, “조용한 소망”은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전해질 “소망”이 세력에 의한 전파가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은밀하게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향해”는 세상을 변화시킬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속삭입니다. 의심의 벽이 무너집니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마음속에 갇혀 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세상에

믿음과 사랑의 확신을 준다는 표현입니다.

3절: 기다리던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환희와 희망을 표현하며, 나레이션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의 희망을 줄 한 아이의 탄생을 모두가 고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 기다리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평화와 사랑이 환상이고 꿈에 불과하지만, 실현시켜 주실 예수의 탄생, 즉 오랜 기다림의 끝이자 새로운 기다림에 대한 설렘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지고 예언되어 온 사건이며, 이 “When a child is born”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의 임박한 탄생에 기대감과 흥분을 동화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천년 간의 기다림이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기다린 것일까요?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 내시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을 저주하시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예고하시는데,

뱀은 사탄을, 여자는 인류를 상징하므로 사탄과 인류의 영원한 갈등에서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즉, 사람으로 오실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머리를 발로 밟히면 발꿈치를 물 수 없고, 사람이 발꿈치를 물리면 머리를 발로 밟을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나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니 과연 뱀의 머리를 밟고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태고적 예고가 참으로 적절합니다.

또 구약성서에는 예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2천 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과 땅 그리고 창세기 12장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탄생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구체화 됩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 이사야서 7장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예언은 예수의 탄생 배경과 함께 그 정체를 임마누엘 (Immanuel: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이외에 이사야서 9장6절 등등,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가서 5장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니라”고 역시 탄생 700년 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 탄생이 하나님의 아주 오랜 계획에 따라 이루지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일까요? BC586년, 이스라엘왕국이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세력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BC167~BC142 25년간의 끈질긴 마카비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BC63 로마에 의해 다시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에 자유와 함께 약속의 땅을 갖게 해준 모세의 역할에 더하여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이룰 메시아(Messiah: 기름부음 받은자)이자 이방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야 9:7에서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앞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였고, 다니엘 7:14에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기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하였으며, 에스겔 38:25도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하였으니 글자대로 해석한다면 유대민족의 그러한 희망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여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나라가 영원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천년만년을 살면서 왕국을 통치하여야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약속의 땅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여호와를 배신했고, 그들에게 배신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국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메시아가 천년을 통치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배신과 징벌의 역사는 과거와 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6:27에서 “씩을 것”이 아닌 “씩지 아니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베드로(1:23-25)는 “너희가 거둬낸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며 예수가 주신 “씩지 않는 것”의 영원함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창세 이래 이어져 온 오랜 기다림이 성취된 사건이며, 구약성서의 실현으로서 예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

다. 만일 예수 탄생이 없었다면, 아마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 의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방송인 김영철과 홍진경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김영철이 “1993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데뷔하셨다면 올해가 데뷔 30주년이나?”라고 홍진경에게 물었다. “그렇다. 데뷔 30주년이다” 했고, 김영철은 1999년에 데뷔해서 올해 24년차라고 하였다. 홍진경은 깜짝 놀라며, “웬지 오빠는 80년대에 데뷔한 사람 같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 같다” 하여 웃음이 터졌다.

한 청취자가 홍진경에게 “만약 스무살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순간도 한 시간도. 지금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또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다.”

너무도 솔직한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잠시 멍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고해(苦海)일 뿐이니 이내 수궁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태어났으니 살아야 하는” 세상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고해(苦海)”로 쫓아내실 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계획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주시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2009년 동계 성서집회

- 장소 : 충남 도고온천 로얄호텔
- 일시 : 1월 2일 - 1월 4일
- 기록자 : 한병덕



오홍섭 손현섭 박종희 김지영 손문일 배지현, 이도현,
양희태 한병덕 권태주 박찬운 ○ 김명자 최미자 김영희 이한중 이진영 길광웅 이운학 김복례
배명수 이재자 주정자 주예로 진영선 이승진 이애주 최선희 권정렬
정승관 정금란 김형철 전준덕 오영환 이진구 석진우 송문호 백충현 박유순 최종금 김영웅
배한길 배한솔 심명규 배이슬, 강정희, 윤승민, 이에지, 나혜원, 이한결, 남지현, 유병주,
김희옥 김종진

2일 오후 전준덕 선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단6 :24-28)

다니엘의 신앙 위대도 감동이지만, 여기서 인간은 역사의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성서의 어떤 이야기에서 보다 뚜렷이 인식할 수 있지 않나 했다.

저녁 길광웅 선생 :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평화」(이사야11:1-9)

이사야를 통한 이상적 다윗왕국에 대한 예언. 다윗의 후손 중에 여호와 의 영이 임하시는 왕이 탄생된다는 것인데 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러한

왕이 나오나? 다윗은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었다고. 그는 왕이었지만 신분에 개의치 않고 절절한 눈물의 회개를 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약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3일(토) 아침 석진우 선생 : 「죄로부터의 자유」(롬6 :1-14)

신앙과 행위의 문제, 그리고 세례의 문제를 설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닌 영적 실제의 문제로서 신앙만의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계실 때, 비로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전 김형철 선생 : 「그리스도신자의 싸움」(엡6 :10-20)

인간 세상도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이요 적자생존으로 싸움의 연속이라고. 그러나 그가 싸워야 할 정말 중요한 싸움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싸움이어야 한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귀의 시험이라는 싸움을 싸워 이겨서 본을 보였는데 그와 같은 싸움은 또한 신자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며 신자는 매일 싸워야 한다고 했다. 평이하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집어내는 강의로서 실로 아멘이었다.

오후, 황연하, 조득환 두 분의 강의.

황연하 선생 : 「기독교란 무엇인가?」(롬6 :11-14)

성서는 덕을 세우는 일이나, 윤리, 교훈을 세우기 위한 책이 아니며 원리를 말씀하는 책이다.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성서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주의 중심인 예수를 알아야 한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실현임을 알고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자라고 한다.

조득환 선생 : 「역설의 신앙」(욥기 13:20-28)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인데, 욥의 간구는 역설적이다. 이 역설은 욥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의 희망조차 희미하던 시대에 생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려워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예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하다.

저녁. 손현섭, 진영선 선생

* 손현섭 선생 : 「승리의 노래」(롬8:35-39)

이 부분은 로마서 8장의 대미(大尾)인데, 바울의 이 ‘승리의 노래’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임을 깨달은 후 극심한 고난을 견디며 복음전파에 나선지 20년의 회고에서 얻은 결론이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라고 했다.

극심한 오랜 고난에서도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외치는 바울과 그 일이 있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듯하여 감격하다.

* 진영선 선생 : 「윌리엄 블레이크의 신곡 그림」

시인 겸 판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신곡의 중요한 그림 일부와, 곁들여 그의 간단한 생애와 사상을 요약 소개하고 단테의 신곡 저술 목적도 요약 소개.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 소상인 가정에서 출생, 13세에 왕립 고대 미술 품협회의 판화가인 제임스 बे지어의 제자가 되고 그 후 로열아카데미에 수학하면서 삽화와 판화를 익혀 판화제작으로 돈도 벌 수 있었으나 가난

하게 살았으며 시인으로서 더욱 유명한 천재 예술가였다고. 그의 단테 관련에서는 신곡을 읽고 떠오르는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1월4일(일) 아침 최병인 선생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마 6:25-34)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의지에 대해 무한히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 산상수훈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

이어서 아침 식사 후 감화회.

이번 집회의 참석자 거의 전원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진행. 풀무고등 학생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의 말씀들이 많았다. 고령이신 백충현 선생님의, 귀도 안 들리시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이곳이 아프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연속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나 마음은 그렇게 또 매사에 감사하다는 신앙노장의 승리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지고, 찬송가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 까지”라는 선생님의 독창에는 어떤 분은 울고 나머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따라 부르고... 일동이 감격 속에 묻히기도 했다.

파하고 신청자만 호텔에서 함께 점심식사 후 각자 귀가. 은혜 중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

이런 일 저런 일

1.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도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으로 잘 이어왔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신앙 걸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변함없이 매월 성서신애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 씩씩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 겨울 전국집회가 없어 서운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꽃피는 훈풍의 4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인 홍성에서 반갑게 만나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 성서신애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편집인의 연락처(010-2060-5534)로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4. 우리집 둘째 손자가 새해 인사 전합니다.(그림 : 메나리)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문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07호 2024년 1월

인	쇄	2024년	1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서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